

제6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 발 표 2.

논골 신용협동조합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과제

유 영 우
논골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논골 신용협동조합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과제

유영우 (논골신용협동조합 이사장)

1. 신용협동조합의 이념 및 정신

1) 이념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2) 신탁운동의 지상 목표

‘복지사회건설’

3) 신탁운동의 정신

자조 / 자립 / 협동

4) 신탁운동의 3대 과제

잘 살기 위한 경제운동 /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

2. 논골신용협동조합(이하 ‘논골신협’ 이라 함)의 탄생 배경

논골신협이 위치하고 있는 성동구 금호동, 행당동, 하왕십리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빈민 밀집지역으로, 예전부터 거의 대부분이 산동네로 이루어져 있었다. 산동네에 살고 있던 상당수의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안정적인 직업이나 직장을 갖지 못하고 일용직 건축노동자 또는 일용직 공장 노동자, 파출부 등과 소규모 가내 수공업 운영 등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주민들은 자녀들의 학자금이나 병원비 등 예상치 않았던 목돈이 필요한 경우, 보통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던 은행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쉽게 돈을 구할 수 있었던 사채업자들을 통한 대출, 즉 고금리의 일수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높은 금리의 사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였으며, 경제적인 자립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재개발에 과정에서 파생되는 이주에 필요한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철거 등을 겪은 많은 주민들은 불안정한 주거상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는 고초를 겪었다.

경제적 어려움에 가중되는 주거불안의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스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게 된다. 논골신용협동조합은 주민(철거민)들의 자주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보태고, 경제력을 합쳐서 돈을 모으고 필요한 사람들이 신용을 통해서 쉽게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설립되었다.

3. 설립 과정 및 현황

1) 금호, 행당, 하왕지역 주민운동

서울 성동구의 금호·행당·하왕 지역은 도심에서 가장 가깝고 규모가 큰 산동네였다. 오래 전부터 서울의 산동네에는 주민(빈민)운동이 시작되었고 전개되어 왔다. 산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주민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힘을 길러 나가는 과정으로 주민운동은 시작되었다. 물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거시적인 측면의 모순들을 타파해 가는 운동과 함께 주민운동은 성숙되고 발전되어 갔다.

금호·행당·하왕 지역의 주민운동은 지역 활동가들에 의해 도시 빈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1987년 시작하게 되며, 주로 탁아소, 공부방 등으로 지역에 정착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밀착된 만남을 이어가며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올해로 주민운동 26년을 맞이한 금호, 행당, 하왕지역 주민운동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논골신용협동조합의 탄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주요한 시기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제1기(1987~1992)

주로 공부방, 탁아소를 운영하며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하며, ‘지역활동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에 대비한 학습 및 주민조직화 준비활동, 센터 간 공동행사, 지방자치 선거에 대비한 공정선거 감시단, 지역단오제 등의 지역전체행사들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2) 제2기(1993~2007)

금호·행당·하왕 지역은 1993년부터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일상적인 지역 활동은 주거권운동을 위한 주민교육과 주민조직화에 집중되었고, 재개발사업 이후의 주민운동을 준비하였다. 재개발사업은 3개동을 합쳐 6개 지구에서 진행되었고, 각 지역마다 주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주적인 주민조직(세입자대책위원회)이 탄생하였다. 또한 이 주민조직들은 연대를 통하여 힘을 결집시키고 임시거주시설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향후 임시거주시설에서의 공동체 생활과 공공임대주택 생활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준비한다.

철거투쟁 과정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데, 지역의 주민지도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주민협동공동체실현을 위한 금호·행당·하왕 지역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는 긴 이름의 조직을 만들게 된다(1994년). 기획단 내에는 경제협동분과, 생산협동분과, 생활협동분과, 사회복지협동분과를 구성하고, 각각의 분과에 기획단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주민협동공동체운동을 추진하게 된다. 논골신용협동조합 또한 경제협동주민공동체분과에서 출발하여 지금에 이르게 된다.

이후 각 분야의 주민협동공동체분과는 임시거주시설 입주(1995년 10월/송학마을)후 본격적 활동을 전개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생산협동공동체 운동은 시장경제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시장경제에 편입되지 못하고 2003년 활동을 접게 되고, 생활협동주민공동체운동은 주민운동의 다변화 과정에서 집중할 수 없는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우리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통하여 꾸준한 준비과정을 진행하였고, 사회복지주민공동체 운동은 기존의 공부방 등의 아동청소년 분야를 승계 발전시켰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공부방, 스카우트, 평화의 집, 지역자활센터 등)을 전개하였다.

(3) 제3기(2008~현재)

기획단을 중심으로 주민협동공동체운동에 집중하던 금호·행당·하왕 지역 주민운동은 일정 정도 기획단의 목표가 달성되었고, 임시거주시설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생활이 안정화되면서 새로운 주민운동 활동방향을 고민하게 된다.

또한 금호·행당·하왕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주민운동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과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성동구 전체를 포괄하는 운동으로 활동방향을 전환하며, ‘생명·살림 성동주민회(이하 주민회/2008년)’를 설립하게 된다.

주민회는 그 동안 기획단이 이루어낸 성과를 계승하고, 심화 발전시키며 성동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밀착된 사업들을 기획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민자치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한편 생활협동주민공동체운동은 논골신흥의 생활협동위원회 구조속에서, 신흥자체 건물(매장 무료 임대)을 활용하여 우리농산물 판매하며,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조합원 조직화 사업을 통하여, 2012년 7월 성동두레생협을 창립하게 된다. 그리고 주민회는 기존의 신흥, 생협,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관련 활동이외에 교육, 환경, 지사체선거를 비롯한 지방정부 감시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소모임 및 동아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랑방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출자금으로 마련하였고, 제 2, 제 3의 사랑방을 준비하고 있다.

2) 논골신흥협동조합 설립 과정

(1) 제 1기(1994~1997) : 설립준비 기간

1993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재개발사업과 이에 맞서는 철거투쟁은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지역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고 철거에 의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의 연속이었고, 결국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남게 되며, 이들의 철거투쟁은 더욱 처절하고 가열찬 투쟁을 전개한다.

6개 재개발지역에서 철거투쟁을 전개하였던 주민조직(세입자대책위원회)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성동지부로 모여 힘찬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한편 철거투쟁의 과정 속에서도 철거투쟁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의 삶의 설계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철거투쟁에 참여하였던 주민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철거투쟁의 결과, 6개 지역에서 송학마을(하왕2-1지구/1995년 10월 입주) 102세대를 비롯하여 약 250세대의 임시거주시설을 쟁취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자신감과 성공리에 마무리된 철거투쟁의 결과로 단결력과 공동체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는 향후 주민협동공동체운동을 전개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으로 작용된다.

기획단의 경제협동주민공동체분과도 1995년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는데, 기획단 구성원에 대한 교육, 주민교육, 신협중앙회 및 연수원 방문, 타 신협 견학 등을 통하여 신용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준비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임시거주시설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철거민들은, 각 마을마다 출자위원을 선출하고, 3년 동안 매일 소액을 출자금으로 모으기 시작하였다. 1996년 8월 발기인 총회, 1997년 출자금 3억 달성, 1997년 8월 창립총회 개최에 이어, 드디어 1997년 11월 28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설립인가(인가번호 1-328)를 취득하고, 송학마을 주민회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신협 업무를 시작하였다.

(2) 제2기(1998~2006) : 정착기

설립인가를 취득하고 부푼 희망과 꿈을 안고 시작한 신흥은 IMF 경제위기라는 커다란 금융위기를 맞으며 어려움에 봉착한다. 주로 서민층이 주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신흥의 특성상 지역경제가 위축되면 자연스럽게 신흥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논골신흥이 위치한 지역은 과거 산동네를 재개발하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변화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전체 거주민들의 약 80% 이상이 교체되며 지역이 재편되는 상황을 맞이한다. 이는 지역에서 오래 동안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타지로 이주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신흥운동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동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IMF 경제위기로 지역경제가 붕괴되면서 조합원 증가 및 운영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역 재편과 더불어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이한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논골신흥 준비 때부터 사무실로 이용해 왔던, 송학마을(임시거주시설)의 주민회관에서 1998년 7월 과감하게 인근 지역으로 사무실을 이주시키면서 본격적인 조합원 확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는 기존의 철거민을 중심으로 하였던 운영에서, 지역사회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철학을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출발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상존하고 있었는데,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동시에 대기업의 마트(이마트, 롯데마트, LG마트 등)도 함께 입점하는 등 기존의 소규모 자영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상권은 위기를 맞이하며 이중고를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설립에 참여하였던 조합원(철거민)들이 중심이 되어, 논골신흥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인 조합원 야유회, 단오제 행사, 거리 홍보, 다양한 지역사회 행사 참

여, 장학제도 운영 등의 다양한 노력들을 꾸준히 전개하며, 조금씩 조합원 증대와 자산성장을 이루어 나아간다.

(3) 제3기(2007~현재) : 도약기

설립인가 이후 국가적 차원의 경제위기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은, 다양한 위기를 불러오며 인근 신협과의 통폐합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였지만, 슬기롭게 잘 넘기고 도약기를 맞이한다.

1차(1998년)로 이주한 사무실은 도로변 안쪽의 골목길에 약 15평 정도의 비좁은 공간을 임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변지역이나 지역사회에 충분하게 인지도를 확보해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마치 금융기관이 구멍가게 정도로 비춰지는 모습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공신력에 믿음이 가지 않는 것 같았다.

이에 자산규모에 비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2007년 3월 도로변의 건물을 인수하여 자체 건물 보유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업무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즉각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오게 된다. 금융기관으로서 자체 건물을 소유했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는 공신력과 신뢰도에 믿음이 가는 좋은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이후 조합원 증가 및 자산증대는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지역사회의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2012년 말 정산기준 자산 약 250억원, 조합원 약 4,000명으로 초보 단계의 수준은 넘어선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좋은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등의 다양한 어려움도 동반되는 것이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3) 2013년 운영기본 방향 및 목표

(1) 조합 사명 및 비전

조합 사명	조합원 간의 교류를 통해 경제적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육성, 발전을 위해 자원을 지원하고 신뢰를 주는 협동조합이 된다.
조합 비전	모든 조합원이 참조합원인 농골신흥 지역사회 밀착하여 경영하는 농골신흥 튼실한 경영을 통한 조합원들의 경제적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농골신흥 소통과 배려로 조합원들과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는 농골신흥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하여 협동사회를 만드는 농골신흥
핵심가치	정직 & 진정성 & 책임 & 도전 & 실천
슬로건	참 조합원이 생동하는 농골신흥 조합원의 꿈나라가 되어주는 농골신흥 협동의 기쁨을 드리는 이웃사촌 농골신흥

(2) 기본방침

- 가.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조합원 교육 및 소통 행사 강화
- 나.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협동경영능력 강화
- 다. 지역 내 다양한 주민 소모임의 참여를 통한 소통능력 강화
- 라. 직원들간의 공동활동을 통한 소통확대와 경영안정화 증대

- 마. 목적 적금 개발과 운용을 통한 조합원 만족도 증대
- 바. 여신 증대 전략 수립 및 집행, 점검을 통한 조합수익성 제고
- 사. 기본 자본금으로서의 출자금 증대 사업 진행
- 아. 참 조합원 증대를 위한 조합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 강화
- 자. 협동하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지역 내 협동조합간의 공동 사업 진행
- 차.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의 확대와 봉사위원회 활동 활성화
- 카. 조합 경영에 참여하는 조합원 확대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진행

(3) 부문별 중점사업 방향(내부 역량강화 중심 과제)

① 협동조합 교육의 강화

- 가. 신규 조합원 교육진행
- 나. 임·직원들의 연수원 교육 및 비전 공유를 통한 협동경영역량 강화

② 조합원 소통활동 활성화

- 가. 지역 내 주민소모임 활동 참여(각종 동아리, 행사 등)
- 나. 지역 문화축제 공동 기획 및 진행 : 논골주민문화마당의 개최
- 다. 조합원의 자긍심 향상을 위한 활동 진행 : 참조합원 행사 진행(선물증정, 야유회, 기획행사 등)

③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 활동

- 가.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 진행 : 어르신 나들이 진행
- 나. 봉사위원회 활동 강화 : 어르신 국수잔치, 어르신 생일상차려드리기, 반찬 봉사 활동 등
- 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진행 : 성동지역자활센터, 인근 신탁들과 업무협약을 통한 홈스튜어드 사업 공동 진행

④ 협동조합간의 협동 확대를 통한 지역협동사회경제 구축

가. 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과의 공동사업 진행

나. 전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적극 참여를 통한 협동조합운동 발전기여

⑤ 지역 단체 및 관련 단체 지원

가. 주민회, 평화의집, 생협, 장학회, 스카우트, 사랑방 등 관련 단체 운영비 지원

나.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제정구기념사업회, 서울동자동사랑방 등 빈민운동 단체 후원

4. 성과 및 과제

1) 주민운동의 관점에서

(1) 성과

주민운동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주민들의 자주적인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권리를 획득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다. 주민협동공동체운동도 이러한 실험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도시빈민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운동의 장점은 경제적인 행위를 통하여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에 실험운동의 이념, 정신 등에 맞는 경영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골실험은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과제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신탁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단오제 주최, 장학제도, 아동청소년 지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사회복지 지원활동을 하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지원들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신탁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통하여,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신탁운동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2) 신탁운동(협동조합)의 관점에서

(1) 성과

신탁운동의 목표는 복지사회건설이다. 심화되는 사회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본다면, 복지사회건설은 사회양극화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의 튼튼한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논골신탁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신탁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정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아직은 미약한 수준

이지만, 지역사회에 공동체운동을 전파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 과제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 주도 금융구조개선은 신탁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부실신탁에 대한 정리, 통폐합 등은 신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규모경영과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풍토는 신탁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정부금융당국(신탁중앙회)의 하향식 지시나 통제는 지역신탁의 자율성을 훼손하며, 신탁의 본래 원칙(정체성)을 지켜나가기가 용이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신탁운동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조합원 증가 및 자산증대,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답은 오히려 간단 할 수 있다. 신탁운동 본래의 정체성과 목적에 충실하며 여타 금융기관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 경영만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논골신탁은 되도록이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다각도로 변화되는 외부의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일인을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는 이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철학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신탁운동이 조합원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자치를 실현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5. 마무리 – 개인적인 생각

1) 회상

■ 천둥 · 번개 · 천지개벽

- 천둥 · 번개 · 천지개벽은 1993년 처음으로 협동조합 관련 서적(몬드라곤에서 배우자)을 접하고 난 이후 온몸으로 요동치던 울림이다.
- 그 동안 책에서 또는 사회에서 배워왔던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을 접하게 된다. 철저한 경쟁체계가 아닌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상부상조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는 계기가 된다.

■ 단결 · 더불어 함께 · 공동체

-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난의 철거투쟁 과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며 자연스럽게 발현된 울림이다.
- 약 3년간의 힘들고 고달픈 과정이었지만 마음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갖는 계기가 된다.
- 각박한 세상살이가 인간본성을 메마르게 하고, 물질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팽배한 세상이지만, 철거투쟁 과정은 인간의 순수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애초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지는 숙명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래도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기대가 생기며 공동체를 알아가게 된다.

■ 기쁨 · 희망 · 자신감

- 철거투쟁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새롭게 협동조합운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가슴으로 느낀 울림이다.
- 임시거주시설을 완공하고 입주가 완료된 어느 날 저녁, 먼발치에서 바라본 송학마을의 야경은 희망으로 다가온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그마하고 초라한 마을일지라도, 그곳은 희망과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희망마을이라는 자긍심을 스스로 확인한다.
- 희망마을 사람들은 협동공동체운동에 매진하며 신탁을 설립하고, 생산협동공동체를 발전시켜나가며, 희망의 씨앗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시작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딛는다.

■ 갈등 · 좌절 · 방황

- 함께 하면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열심히 노력을 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의 벽은 이기심과 개인주의, 물질만능이 지배하며, 우리의 희망이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가슴이 무너지는 울림이다.
- 갈등 속에서 발생하는 상처와 충만하였던 자신감이 상실되면서 오는 좌절감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며, 오랜 시간 희망의 불꽃을 되살리는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희망과 절망을 나누어진다는 것과 여전히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 또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자기취면과 더불어 협동조합운동의 가치를 다른 각도에서 성찰하는 계기가 되며, 미래의 희망

인 우리의 아이들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 사랑 · 평등 · 통합

- 단순히 협동조합운동을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잘 살아보자’라는 가치로 보지 말고, 협동조합운동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가슴 깊은 곳에서 다가오는 울림이다.
- 협동조합운동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가치와 철학은, 서로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통한 타인의 대한 배려가 우선된다. 이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합의된 공평성은 개인주의를 배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 발전시키며 평등한 세상을 구현하며 공동체를 활성화 시킨다.
- 또한 경제적인 잣대로 사람의 인격을 구분하는 척박한 세상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며 국가발전의 근간을 이룬다.

2)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것들

■ 준비성

- 협동조합운동의 이념, 철학,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미흡
- 신탁경영에 대한 공부 부족

■ 헌신성

- 봉사자로서의 자세 미흡(자기 직업과의 역할 정리 미흡)

■ 계획성

- “천천히, 꾸준히, 확실하게”에 의한 계획수립 미흡(분석, 평가, 해결책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 인간은 본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서로 상부상조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부상조의 본성을 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특히 18세기부터 본격화된 산업화 사회는,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을 자본에 종속시키며 물질주의, 개인주의에 의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 이러한 자본주의 발달은 인간의 본성을 피폐화하고, 빈부격차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양극화문제를 야기 시키며, 사람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자본 중심의 사회현상을 고착화시켜 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그러므로 협동조합운동은 태초에 상부상조해야만 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협동을 통하여 ‘잘 살아보자’라는 경제적인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협동조합운동 본연의 내면적인 가치철학을 주요하게 고려하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 이는 협동조합의 철학이 태초의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발현되는 것이며, 없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 진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 속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이를 망각하고 자본의 노예로서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스스로 손상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협동조합운동은 기능과 방법론적인 측면(성공적인 협동조합에서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경제적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운동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인간의 본성에서 발현되는 ‘더불어 함께’ 라는 가치적 관점) 부분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두레’를 포함한 다양한 상부상조의 전통이 있었고, 민족성 자체가 협동에 익숙한 민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한하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와 개혁의 모토이기도 하다!!

4) 현재 실험의 문제점과 과제

■ 문제점

- 공동유대 개념 상실(상부상조, 공동체성의 파괴) - 조합원들의 주인의식 결여
- 교육 약화 「조합원, 임원, 직원」 - 자산증대, 이익극대화의 교육 위주
- 정부/중앙회의 하양식 지도 감독체계 강화로 인한 자율성에 의한 자체 운영관리 기능 저하
- 자율보다는 타율, 협동보다는 경쟁, 지역사회와 밀착된 관계 금융 상실, 영리를 우선 시 함으로서 파생되는 협동조합 운동의 침체

■ 과제

- ◎ 실험에 대한 자긍심과 성찰이 필요하다.

- 협동조합(신협)운동의 가치, 철학, 이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 평화운동이며 생명운동 - 복지사회 건설
 - 신협은 사업체(금융)이기도 하지만 결사체이며 운동이다.
 - 자본주의의 모순을 타파하는 대안운동이며 더불어 잘살기 위한 경제운동이다.
 -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성장하기 위한 교육운동이다.
 - 상부상조의 정신과 도덕적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를 정화시켜나가는 윤리운동이다.
 - 운동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
 - 협동: 상부상조의 정신(공동체, 일인을 만인을 위하여 만인을 일인을 위하여)
 - 자립: 근면, 절약, 저축의 정신
 - 자조: 스스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정신
- ◎ 협동조합 시대에 따른 시대적 요구의 부응을 통한 정체성 회복이 필요하다.
- 건강한 협동사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협동과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를 통하여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실현에 기여한다.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훈련, 컨설팅, 생산·소비·유통, 금융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력이 우선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순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신협 고유의 정체성으로 회귀(回歸)하여, 이를 통하여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